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18.(수) 11:00 이후(11. 19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11. 18.(수)

건설현장 사망사고 재발 막는다‥ 안전관리 강화 총력

- 19일 주요 건설사 12개사와 안전관리 점검회의 개최
-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점검,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**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사의 안전관리를 강화**하기 위해 11월 19일(목) 오후 2시 서울에서 시공능력평가 100위내 대형건설사 중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사를 대상으로 **'건설현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점검회의'**를 **개최**한다.

○ 이번 회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, 각 건설사가 마련한 **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**하여 **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특히,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**추락사고*와 관련**하여 **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**하고, 추락방호망·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,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등 **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**할 계획이다.

* 전체사망자(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기준) : ('23) 244명 → ('24) 209명 → ('25)199명 → ('26.10)106명
추락사망자 : ('23) 127명(52.0%) → ('24) 108명(51.7%) → ('25)100명(50.3%) → ('26.10) 48명(45.3%)

- 아울러 건설기계 관련 끼임·부딪힘 사고, 토사 붕괴로 인한 깔림 사고 등 **주요 사망사고 유형**에 대한 **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논의**할 계획이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설사의 **안전관리 역량을 강화**하는 한편, 사고 발생 현장의 재발방지대책이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**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철저히 이행**되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와 함께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이를 위해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**소규모 건설현장**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안전관리 미흡사항 및 사고 취약공정 등에 대한 **패트롤 컨설팅**을 **강화**하고, **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** 시에도 안전관리현황, 사고예방대책 이행 실태 등도 **집중적으로 점검**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이번 회의에 이어 11월 23일에는 외벽공사 등 **추락 위험이 높은 공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**와도 **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**하여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고, 사고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.

□ **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**은 “**건설현장의 안전**은 타협할 수 없는 **최우선 가치**”라고 강조하며, “각 건설사가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**실제 현장** 작업자 한 명 한 명에게까지 **철저히 이행**될 수 있도록 **지속적인 점검과 관리**를 이어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창훈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형 (044-201-417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